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쌀소득보전직불제 현장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나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1월 30일 현재 총 30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찬성 13.3%(4표) 반대 86.7%(26표) 모르겠다 0.0%(0표)로 나타나,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한농연 회원들은 강한 거부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간 쌀수입의 0.5%를 적립한 농가에 수확기 명목 쌀가격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상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계약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20일 농림부의 발표에 의하면, 쌀소득보전직불제 계약신청 접수 마감 결과, 전체 대상농민 104만85명중에서 16.5%인 17만1,64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면적은 대상면적 89만6천176ha의 18.2%인 16만2천796ha로 집계됐다.

한농연 2002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 진행

『한농연 2002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이 지난 11월 21일(목) 오후 2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정보화 교육은 업무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 사회에 한농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무요원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도연합회 및 시·군연합회 사무요원과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정보활용 능력 배양으로 원활한 업무교류와 경쟁력을 높여, 조직운영의 혁신은 물론, 지역의 정보화까지 선도할 수 있는 사무요원 육성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이번 교육 참가인원은 20명으로 상반기 교육 때 보다 참가율이 저조했으나, 수강생들의 뜨거운 교육열의로 알찬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농연과 농업의 정보화를 위한 알찬 교육이 되길 바란다”는 임태정 충북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개막식 인사를 시작으로, 1박2일 간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첫날, PC 운영(Windows98) 수업에서는 컴퓨터 부품조립에서부터 Windows98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컴퓨터를 다루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 정보사업팀 유혜경 팀장의 강의가 있었다.

둘째날은 홈페이지 제작, 애니메이션 카드 등으로 대중화 되고 있는 ‘플래쉬(flash)’를 익히는 시간으로, 충북도연합회 정경일 차장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이끌어 나갔다. 수강생들은 모두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는 '플래쉬 버튼' 을 만들어 보며, '플래쉬' 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강의로 진행된 'EXCEL' 수업은 청주직업전문학교의 허선영 교수의 강의로 '수식의 응용', 자료의 차트 관리, 데이터베이스화 등 기초입문부터 중급이상의 내용을 다루었다. 'EXCEL' 은 연합회 사무실 운영과 농산물의 통계자료 분석 등 그 쓰임이 유용하여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육을 마친 후 이루어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강생들은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연합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참고삼아, 2003년도에는 실제 업무현장이나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기술을 계속해서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그밖의 농업계 소식

양곡유통위원회, 추곡수매가 건의안 제출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2% 인하' 하거나 '3% 인상' 하는 두 가지 건의안을 내놓았다. 양곡유통위원회는 30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갖고 2003년산 추곡 수매가를 '올해 보다 2% 인하하자' 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안을 제1안으로, '3% 인상하자' 는 농민단체 건의안을 제2안으로 하는 복수안을 제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안을 보면, 올해 쌀수매가 6만440원(벼 40kg 1등급 기준)에서 2% 인하된 수매가는 5만9,230원이며, 수매량은 532만6천석이다. 또 3% 인상된 수매가는 6만2,250원이며 수매량은 504만3천석이 된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이와 함께 2003년산 보리 수매가 역시 2% 인하하는 방안(조곡 40kg 1등급 기준 겉보리 3만860원, 쌀보리 3만4,980원)과 3% 인상하는 방안(조곡 40kg 1등급 기준 겉보리 3만2,430원, 쌀보리 3만6,760원) 등 두 가지 건의안을 확정했다.

또한, 양곡유통위원회는 농민단체가 요구한 양곡유통위원회의 폐지와 이를 대신해 양곡정책 전반을 논의할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최소한의 식량자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과 재원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평가와 차기정부의 협동조합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농민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한 농·축협 이·감사 전국모임 준비위원회」결성!!

지난 12월 3일,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농민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한 농·축협 이·감사 전국모임(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정부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평가와 차기정부의 협동조합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지난 5년 간 정부가 추진했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전국적인 협동조합 이·감사모임 결성을 통해 향후 협동조합 개혁과제를 도출하고자 한 자리였다.

특히,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농민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한 농·축협 이·감사 전국모임(준)」(이하 전국모임(준)) 준비위원회 결성식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100여명의 이·감사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 ‘전국모임(준)’은 결성식을 진행하면서 임시대표를 맡았던 화성 조암농협의 김진효 감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향후 2003년 3월까지 1,000명 회원 가입을 목표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모임(준)’은 ‘농·축협 이·감사들이 앞장서서 농민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행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결성한다’고 결성의의를 밝히고, 농민중심의 협동조합 운영방안 마련과 실천 등 총 7가지 목표를 발표해 향후 협동조합개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현장의 이·감사 3명의 주장이 이어졌으며, 김세기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을 비롯한 8명의 토론자들이 현장감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장종익 소장은 차기정부의 협동조합 개혁과제로 △경제사업조합원과 신용·생활사업조합원로의 구분 운용방안 검토 △지역조합의 연합회 설립자유 허용 △이사회(비상임조합장)-상임이사체제로의 전환 △이용고배당 중심의 이익처분 시스템마련 △중앙회의 신·경분리와 비사업적 기능의 중앙회 정립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우리쌀 지키기 여성연대 발족!!

한여농을 비롯하여 전여농,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1개 여성단체 참여

지난 11월 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여농중앙연합회를 비롯한 11개 여성단체는 우리쌀 지키기 범여성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쌀 지키기 여성연대(이하 여성연대)를 출범시켰다.



▲ 지난 11월 2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개최된 우리쌀 지키기 여성연대 발족 및 기자회견 장면.

자 나누어주기', '우리쌀 지키기 만평 전시회' 도 함께 가졌다.

여성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WTO 쌀 재협상을 목전에 둔 현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성단체들은 2004년 쌀 재협상에서 더 이상이 수입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관세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쌀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아이들의 건강이 달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인사동 일대에서 ‘우리쌀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쌀과

보건복지부,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료 올해이여 내년에도 인상!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3년 의료수가 2.97%, 건강보험료 8.5% 인상을 결정하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농단협을 비롯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였고 공익위원 1인도 사퇴를 선언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정부와 의약계, 공익위원들은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이를 가결시켰다.

이번 결정이 있기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모임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수가, 보험료 인상 논의에 반대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인상’ 논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농연도 이번 모임에 참석하여 농민단체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 “의료수가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은 가입자단체들의 퇴장으로 그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작년 온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의사들의 파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의사 달래기’로 인해 의료수가는 44%나 폭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재정파탄의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올해 국민이 내는 보험료도 6.7%나 인상되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또 다시 8.5%인상을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역대연봉에 육박하는 월 78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계산하여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평균 노동자 임금의 6.2배나 되는 것이며, 월 평균 2백만원도 되지 않는 농민들의 농가소득과도 비교해 본다면, 의사들의 인건비 기준은 말 그대로 특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또한, 공급자단체가 처음 제시한 인상안에는 의료수가 20%, 건강보험료 38%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서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정부의 계속된 마찰과 건강보험정책심의회 파행운영에 대해, 농단협을 비롯한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2월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의 탈퇴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한농연도 지난 11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방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로 적극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한농연 뿐만 아니라, 한농연이 참가하고 있는 건강연대를 비롯한 WTO국민연대, 농단협과 함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 미군법정에 의해 무죄판결, 전국적으로 규탄시위 이어져...

가해 미군 무죄판결 받은 후, 도망치듯 출국!!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고등학교, 네티즌 소파협정 개정 및 재판무효 촉구!!



▲ 지난 12월 7일, 고 심미선, 신호순양을 추모하고,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2만 인파. 이날 광화문에 모인 2만 인파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미 대사관 앞까지 진출하여 미국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 심미선, 신호순양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훈련도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하여 자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자체조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서둘러 종결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주한 미군 장갑차 관제병과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은 지난 과실치사 혐의

로 미군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로 석방된 후 미국으로 급히 출국하였다.

여중생 심미선, 신호순 양의 압사사건의 가해 미군의 무죄소식이 전해지자 ▲ 미군법정에서의 재판무효 ▲ 소파협정 개정으로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울 것 ▲ 사건의 진상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7일 광화문에서는 전국의 대학생, 고등학생, 종교단체, 네티즌 동호회, 주부와 직장인 등 각계 각층의 시민 1만~2만 여명이 모여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광화문 앞 촛불시위는 매일 저녁 6시에 계속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이버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온라인·오프라인 시위 및 미백약관에 항의메일 발송하기, 투쟁기금 마련, 미국 제품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살인미군 회개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에 돌입했으며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시국기도회를, 원불교단체들은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평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故 심미선 신호순 두 여중생에 대한 천도법회를 열었다.

또한 연예인과 문인협회 등도 추모행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두 여중생 죽음에 대한 죽음에 애도와 규탄 대열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전국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파협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훈화교육을 실시하고, 촛불시위에 참석하며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항의시위에 대하여 주한 미8군사령부는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 시설에의 불법 침입과, 병사들에게 부상을 초래할 지 모르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만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25전쟁동안 3만3천명의 미국인과 50만명의 한국인이 목숨을 바쳐 오늘날 여러분 세대들이 향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한국 경찰과 서울지검이 미국 시설에 불법 침입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8군사령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하여 한 네티즌은 “여중생 두 명을 무참히 깔아 죽이고도,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오만함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중생 대책위는 “국민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한국 국민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처사”라고 미8군사령부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한농연 회원이자 미선양의 부친인 심수보 회원과 두 여중생 유가족들은 지난 12월 10일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한농연**

